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96

예수님을

모르चे 한 베드로

(마태복음 26:57 ~ 27:14, 마가복음 14:53 ~ 15:5,  
누가복음 22:54 ~ 23:12, 요한복음 18:12-38)

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 
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향했어요.  
그 무리 뒤로 베드로가 멀찍이 숨어서 뒤따라오고 있었죠.  
가야바의 집 마당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 
베드로는 모닥불을 쪼고 있던 병사들 사이에  
몰래 끼어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.

가야바 앞에 예수님을 데려다놓은  
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 
거짓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.



**“저 자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상대로  
사기를 친 사기꾼입니다!”**

**“예수 저 자는 가짜 병자를 데려다가 기적을  
일으키는 낭 고쳐주는 척 했습니다!”**

**“심지어 성전을 헐고 자기가 사흘 만에  
다시 짓겠다고 허풍을 쳤어요!”**

**하지만 이들의 말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기 때문에  
서로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.**

그러자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죠.

**“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 
그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 
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.**

**“흠. 예수, 똑똑히 대답해 보거라.  
네가 정말로,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가?”  
이들의 말이 사실인가?”**

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죠.

**“그렇다. 이후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 오른편에  
앉아 있는 모습과  
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.”**

그 말에 가야바가 잔뜩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.

**“네 녀석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!  
여보라,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는가?  
이 자를 우리가 어찌 해야 하겠나?”**



**“당연히 죽어 마땅하오! 당장 죽읍시다!”**

**“보통 건방진 자가 아니오!  
두 말 할 필요 없이 죽여야 합니다!”**

모두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쳤어요.

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동안  
베드로는 여전히 마당에서 불을 쪼고 있었어요.

그 때 가야바의 하인 한 사람이 베드로를  
유심히 쳐다보더니 베드로에게 물었죠.

**“어?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?”**

깜짝 놀란 베드로는 재빨리 대답했어요.

**“내, 내가 말이요? 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거요?”**

베드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 
대문 쪽으로 이동했어요.  
그러지 또다른 하인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죠.

**“어머어머! 저 사람 맞네 맞아!  
예수랑 한 패가 분명해요!”**

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자 베드로가 소리쳤어요.

**“아니라니깐 왜들 그러시오!  
나는 예수 그 사람을 모릅니다!”**

그렇게 한 시간 쯤 지났을까, 이번에는 또다른 하인들이  
집에 들어왔어요.

그중 한 명은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귀가 잘렸던  
하인의 친척이었죠.



**“오호! 너구나! 내 친척의 귀를 자른 녀석이!”**

**“말투만 봐도 갈릴리 사람들 말투잖아!  
예수도 갈릴리 사람이니 한 패가 분명하군!”**

이제 베드로는, 악을 써대면서 강하기 부정했어요.

**“생사람 잡지 마시오!  
나는 예수를 모르오! 진짜 모른단 말이오!”**

그리고 바로 그 때!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.  
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 
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.

**“베드로야,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 
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.”**

절대 그럴 리 없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 
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.  
너무나 괴로운 나머지,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 
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..!

아침이 밝아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 
예수님을 묶어서 로마의 총독 ‘빌라도’에게로 끌고 갔어요.

“총독이시여, 이 자는 온 유대 땅을 누비며  
백성들을 홀리고 소란을 피운 잡니다.  
사형 선고를 내려 주시옵소서!”

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.

“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?”



**“네가 말한 대로다.”**

**빌라도는 예수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지만  
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.**

**‘흠... 죄인이라면 누명을 벗으려 무슨 말이라도  
할 법한데, 이상하구만.  
저 자들이 말하는 예수의 죄명도 사형시킬 정도는  
아닌 것 같고 말이야... 흠...’**

고민 끝에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어요.

**“예수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 출신이니  
이 문제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판단할 문제다.  
헤롯에게 보내라!”**

때마침 헤롯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 
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.

**“뭐라? 예수가 잡혀 왔다고? 오호호호 잘 됐구만.  
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예수의 얼굴 한 번 보고 싶었는데  
내 앞으로 데려와라!”**

헤롯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 
기적을 보고 싶었어요.  
그래서 이것 저것 시켜보기도 하고.  
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 
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.

결국 헤롯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 
군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.

**“유대의 왕이라는 자가 옷차림이  
이게 무슨 꼴이냐?  
여보라, 이 멍청한 자를 화려하고 빛나는 옷으로  
갈아 입혀라! 오호호호.”**



그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 옷을 입혀 놓고는  
예수님을 비웃고 놀러댔죠.

“아이구 왕 납시셨습니까?  
새 옷은 마음에 드시는지요? 오호호호.”

그렇게 한참동안 예수님을 모욕하고 나서야  
헤롯 왕은 흥미를 잃었어요.  
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 
되돌려 보내기로 했죠.

**“총독님! 더 이상 지체마시고  
결정을 내려주십시오!”**

**“뭘 망설이십니까?  
‘사형’ 한 말씀만 하시면 될 걸요!”**

다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어요.

**‘아무리 봐도 예수가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진  
않은데 말이야 그렇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  
저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.  
소란 피울 게 분명해.  
이를 어찌하면 좋을까.... 흠...’**

그리고 잠시 후  
빌라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.

**“옳지! 내가 그 방법을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?  
그렇게 하면 되겠어! 헤헤헤.”**

여러분, 빌라도 총독은 무슨 생각을  
하고 있는 걸까요?  
여기저기서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에겐 또  
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?